

같이면서도 다른 공동체주의와 유가주의 정치철학

구성원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지향하는 점은 같아...

각 이론이 제시하는 삶의 비전과 현실 대응 방법에서 큰 차이 보여

김비환 | 성균관대 정의과 교수

공동체주의는 서구사회에 만연한 대부분의 사회문제들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만을 강조한 자유주의의 불가피한 귀결이라고 비판한다. 유가주의 정치철학은 가족과 다문화에 대한 대응에서 공동체주의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상호의존적인 관계적 삶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주의와 유사한 면이 있다.

정치철학은 위기의 산물이다. 과거의 위대한 정치철학들은 낡은 시대가 쇠퇴하고 새로운 시대가 태동하기 시작했던 위기의 시기에 그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했던 치열한 노력의 소산이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홉스와 마르크스의 정치철학 그리고 동양의 유가주의와 도가주의 정치철학은 모두 다 그런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볼 때, '포스트모던 시대' 혹은 '혼돈의 시대'로 규정되곤 하는 오늘날의 상황은 그 어느 시대에 못지 않은 위기의 시대라 할 수 있는 바, 위대한 정치철학의 탄생을 고대하는 시점이라 하겠다.

자유주의 정치철학 비판한 공동체주의

1980년대 후반 동구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역사의 종언'론이 제기된 이래 세계의 지성계는 자유주의가 과연 인류의 미래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공존의 원리가 될 수 있는가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여오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공동체주의, 중동의 이슬람주의와 아시아의 유가주의 등 다양한 사조들은 자유주의의 확산이야말로 현대문명의 위기와 삶의 황폐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역사의 종언'론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신분제도에 터잡고 있었던 봉건사회가 본격적으로 해체되기 시작하고 수평적인 인간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가 태동하기 시작했던 17세기의 서유럽에서 태동했다. 최초의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은 원래 자유롭고 평등했으나 봉건질서의 관습과 전통에 의해 억압받고 불평등하게 됐다고 비판하며 자유롭고 평등한 삶이 실현될 수 있는 이상적인 질서의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민주주의와 시장은 그와 같은 삶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로서 옹호됐다.

그러나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그 제도적 실현과 더불어 맹렬한 비판의 포화를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프랑스 혁명 직후 대두한 보수주의 철학의 도전을 받았으며(버크, 보날) 곧 이어서 사회주의 사상의 도전을 받았다. 특히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은 1917년 레닌이 주도한 러시아 혁명을 통해 제도적으로 구현됐으며 20세기 마지막까지 근 1세기 동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군림했다. 그러나 해방과 풍요와 만인유대의 비전을 주창했던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경제적 비효율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했던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은 결과적으로 자유주의 정치철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했다.

자유주의가 다시 활력을 찾은 오늘날 자유주의에 대항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사조중의 하나가 바로 자유사회 내부로부터 출현한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다. 매킨타이어(A. MacIntyre), 샌들(M. Sandel), 테일러(C. Taylor), 벨라(R. Bellah) 등 이른바 새로운 공동체주의자들은 인간소외와 고독, 각종 범죄와 이기주의의 횡행 등 서구사회에 만연한 대부분의 사회문제들이 공동선과 공동체의 가치를 폄하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만을 강조한 자유주의의 불가피한 귀결이라고 비판한다. 공동체주의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원래 상호의존적이며 결합돼 있는 '사회적 존재', 곧 자기 정체성과 도덕관념마저도 공동체적 삶을 통해 얻는 존재다. 공동체는 모든 인생의 가치와 의미의 발원지로서 인간다운 삶의 터전이요 도덕판단의 지평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현대 공동체주의에서 좋은 삶의 비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이다.

가족 중심의 유가주의 정치철학

유가주의 정치철학 역시 서구 공동체주의와 마찬가지로 상호의존적인 관계적 삶을 지향한다. 정통 유가주의에서 바람직한 삶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선한 잠재력을 계발함으로써 타인에게 덕을 미칠 수 있을 때 성취된다. 개인의 정체성과 도덕의식은 중층적인 인간관계망 속에서 규정되며, 덕스러운 개인의 삶은 이런 인간관계망 속에서 자기의 위치에 걸맞는 처신을 할 때 완성에 도달한다. 예컨대,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도리와 의무를 다할 때 이상적인 질서와 올바른 삶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유가주의 정치철학이 제시하는 삶의



정치철학은 위기의 산물이다. 혼돈의 시대로 규정되는 오늘날의 상황은 위대한 정치철학을 고대하고 있다. 사진은 한국정치의 산실인 국회의사당 전경.

비전은 서구의 공동체주의가 제시하는 삶의 비전과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주지하듯이 유가주의 정치철학은 가족이란 최소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를 이해한다. 개인(己)의 정체성은 일차적으로 가문을 중심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가족 내에서 효의 습득은 국가와 임금에 대한 충성과 모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예의 출발점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서구 공동체주의에서 공동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는 다소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다. 서구 공동체주의의 경우 가족이란 단위는 유가주의에서처럼 그렇게 특별한 위상을 점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리스와 로마에서 발원한 공화주의적 공동체주의의 전통이 애초부터 (도시)국가라는 초가족적 거대공동체를 배경으로 형성됐던 데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서구의 공동체주의와 동양의 유가주의는 또한 현대사회의 다문화주의 현상에 대한 대응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오늘날 서구사회의 정치적 사유는 문화(또는 가치)다원주의를 배경으로 이뤄지고 있다. 기독교에 의해 비교적 높은 동질성을 보여왔던 서구 사회는 근대 이후 세속화의 진전 및 산업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는 사회로 변모해 왔다.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이런 변화를 개인의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배경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공동체주의는 이런 경향을 좋은 삶을 가능하게 했던 절대적인 선의 상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리하여 자유주의 사회

에서 가치 혹은 선의 문제는 개인의 주관적인 선호와 감정에 기초한 선택의 문제가 됐다는 것이 공동체주의자들의 판단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와의 오랜 경쟁과 다원주의적 경향의 심화는 현대 공동체주의자들에게 일정한 자유주의적 가치와 제도들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게 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 때문에 현대 공동체주의자들은 오늘날의 주요한 자유민주주의적 제도들을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대체로 자율성의 가치와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수용한다. 문제는 현대의 자유주의 사회가 가치상대주의에 지나치게 동화되고 있다는 것과,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동의 탐구를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렸다는 데 있다. 그들은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인 개인의 자율성은 무엇이 가치 있고 좋은 삶인가에 대한 윤리적 탐구와 결합할 때만 인간의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오늘날의 유가주의는 아직도 문화다원주의의 도전에는 비교적 무관심한 것처럼 보인다. 현대사회가 제기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문화에 기인한다고 본다는 점에서는 서구의 공동체주의와 유사하다. 그러나 다문화주의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에는 소극적인 것처럼 보인다. 물론 동양사회는 서구에 비해 여전히 동질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동양사회의 문화적 구성 역시 서양에 못지 않게 다양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게다가 현대사회의 상호의존적 통합과정은 동양

사회를 다양한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더 이상 자유롭게 놔두지 않는다. 다양한 문화와 생활양식들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유가주의는 어떤 공동체주의적 삶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사회의 진화 방향을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좀더 구체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에 대한 유가주의의 입장은 무엇인가? 유가철학은 현실사회를 벗어난 초연한 현자의 독백이나 고답적인 문헌해석에 만족해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도 혼란과 무질서가 팽배했던 현실사회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코자 치열하게 고민했던 공자와 그 제자들의 정신을 잃어버린 결과일 것이다.

한국 지성계가 풀어야 할 숙제

현대문명에서 삶과 질서의 문제는 이상의 여러 사조들 중 어느 한가지에 의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람직한 질서 속에서 행복한 삶을 위해 개인의 자유는 물론 다양한 이상의 존재와 공동체의 끈끈한 유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오늘날의 사회가 지나치게 개인중심적이며 권리중심적이라 비판한다. 반면에 자유주의자들은 오늘날의 사회가 아직도 억압적이며 충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전통적인 공동체주의 문화도 근대적인 자유주의 문화도 아닌 새로운 질서의 원리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들의 주장은 옳은 부분도 있고 그릇된 부분도 있다. 또 어떤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필자는 21세기 초 정치철학의 지상과제는 이들의 주장 중 긍정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통합해 실현하느냐에 있다고 본다. 물론 하나의 이상적인 통합론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 정치철학자가 속해 있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요소들을 통합하는 방식은 전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 문제야말로 오늘날 한국의 지성계가 직면한 가장 절박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